

“관리자 갑질 인정되고도 징계 무산”

전교조·전공노, 전북교육청에 “징계위 전면 교체해야…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가 관리자 갑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전면 교체와 갑질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관리자 갑질에 면죄부를 준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A특수학교 관리자 갑질 사건을 공개했으며, 해당 관리자가 교사들에게 언어폭력과 공개 모욕을 일삼고 병조퇴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사실상 막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정을 독단적으로 변경한 뒤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구토와 어지럼증, 하혈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일부는 학교를 떠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당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전교조가 신고한 관리자 갑질 사건 2건 모두 감사 결과 갑질이 인정돼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가 두 사건 모두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고 감사관실이 이에 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가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자 갑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전면 교체와 갑질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북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에서 갑질이 인정됐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면 피해 교직원들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현재의 징계위원회가 관리자 갑질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갑질은 일반적인 공무원 비위와 달리 신고 순간부터 피해자가 존재하

는 사건”이라며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가해 관리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갑질이 인정된 뒤에도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갑질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즉시 임시조치와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징계와 구분되는 전담 처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이른바 ‘갑질조례’로 개정해 실효성 있는 갑질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 전면 교체 △갑질 신고 즉시 피해자 보호와 분리조치 의무화 △갑질 사건 전담 처리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오상근 기자

‘친환경 급식으로 더욱 건강한 학교생활’

전북교육청,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수상작 96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8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수상작 96점을 선정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제8회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 심사 결과 6개 부문에서 총 96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급식 실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

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그림일기, 포스터, 캠페인 사진, 소트폴, 이모티콘 등 6개 부문에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해 모두 801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전북교육청은 식생활교육과 학교급식, 미술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과 장려상 60점 등 모두 9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은 그림일기 부문 최승윤(전주문화초 2학년), 포스터 부문 김하숨(이리서초 6학년)과 이진(원광

보건고 2학년), 캠페인 사진 부문 조경수(군산중앙초 교사), 소트폴 부문 김보민(전주은빛초 6학년), 이모티콘 부문 김예령(전주중 3학년)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전북교육감상과 함께 상금 또는 문화상품권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자료집으로 제작돼 도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된다. 교육청은 이를 학교급식 정책 홍보와 식생활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임영근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 공모전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배려와 존중의 가치, 생태급식 실천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습관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유니텍고, 산업기사 자격시험서 27명 합격

제과산업기사 전원 합격

자동차정비산업기사는

86.7% 높은 합격률 기록

전북유니텍고등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현장 중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북유니텍고등학교(교장 박종재)는 지난 6월 실시된 202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평가에서 조리테크과와 EV기계과 학생 29명이 응시해 27명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과산업기사 응시생 14명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자동차정비산업기사도 응시생 15명 가운데 13명이 합격해 86.7%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학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실무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학생들 또한 수업과 실습에 적극 참여하며 반복적인 과제 수행과 평가 준비를 통해 전공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것이 높은 합격률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박종재 교장은 “제과산업기사 전원 합격과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높은 합격률은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를 세



전북유니텍고등학교는 지난 6월 실시된 202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평가에서 조리테크과와 EV기계과 학생 29명이 응시해 27명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우고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한 결과”라며 “학생들의 자격 취득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도한 교사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유니텍고는 앞으로도 조리과 자동차 분야의 전문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과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 학군단

후보생 위문 격려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김강주)는 지난 16일 육군학군사학교(총복 과산)를 방문해 하계 입영훈련 중인 본교 학군단(ROTC) 후보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 김강주 총장과 김영숙 학생처장은 이날 훈련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격려하고 피자, 차진 등 간식을 전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한국어 전문 교원 양성

국립군산대 한국어교육학과 대학원과정

최근 K-POP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 글로벌 하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어를 배워려는 학습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대학원은 언어학·교육학·문화학을 융합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 언어학 분야의 권위자인 박시균 교수를 지도교수로 직접 교육을 통하여 더욱 양질의 교육으로 한 획을 긋고 있으며 한국어의 우수성을 많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까지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접 교육은 기타 인터넷 매체나 다른 통신수단의 교육과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물은 하나에 큰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고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을 통해 한글사랑이라는 또 다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도교수 박시균 교수의 ‘한국어 음성음운 교육론’은 각 단원별 교육내용에 대해 제시·연습·활용·확인’의 모형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한국어의 음성, 음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도 혼자 공부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 교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출판·번역·문화콘텐츠 기획 분야 등 다양하다.

군산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는 글로벌시대 의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해 이러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인재를 모집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군산대 한국어교육학과 대학원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군산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대학원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과정으로, 교원 자격 취득과 글로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학문적·실무적 기반을 제공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권 대학 입시정보 한눈에

전북교육청, 25일 입시설명회… 전북대 등 6개 대학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해 전북권 주요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초·중·고·대 시청각실에서 2027학년도 대입 준비를 위한 전북권 대학 입시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북대학교와 국립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도내 주요 6개 대학이 참여해 지난해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과 대학별 핵심 지원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창조나래 3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는 대학별 입시설명회와 함께 오

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각 대학 입학지원관이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대입 상담실도 운영된다.

상담실에서는 대학별·학과별 전형 특징과 지원 전략 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과 질의응답이 진행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최은기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도내 수험생들이 지역 주요 대학의 강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교와 지역 대학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교육 진학지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입 지원을 지속해 나간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학교도서관 북큐레이션 지원 확대

완주교육지원청, 주제별 도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북큐레이션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은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북큐레이션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별 희망 주제를 반영한 맞춤형 북큐레이션과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도서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학교가 보유한 도서를 활용해 주제별 북큐레이션 전시를 구성하고, 관련 도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반기에는 봉성초등학교에서 ‘우정·가족’, 삼례초등학교와 비봉초등학교에서 ‘환경’, 전북체육중학교에서 ‘추리·공포’를 주제로 북큐레이션과 독서 체험 행사를 운영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주제별 도서 전시를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관련 도서를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등 독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혔다.

완주교육지원청은 하반기에도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과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북큐레이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의 독서행사 운영 부담을 줄이고,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일상 속 배움과 독서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영민 교육장은 “북큐레이션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된 책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독서 지원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